



한중인쇄문화 교류회의

상해국제인쇄전 참관 ·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세미나도





상해 푸둥공항에서의 영접  
 중화상무연합인쇄시찰  
 상해국제인쇄전시장 입구  
 동양잉크전시관에서 환담  
 All in print china 개막식  
 상해국제인쇄전시장내의 한국인쇄관  
 한중인쇄문화교류 간담회  
 한중인쇄기자재교류세미나  
 한중합작 상하이태용이터너시너리 회의장  
 무문상 명예이사장 주최 합동만찬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회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충원 회장,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정석 이사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김진배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김국 부회장, 오세익 전무이사, 이상재 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상해국제인쇄전 참관 및 한중인쇄문화교류 대표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해 일원을 다녀왔다.

대표단은 11월 13일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 중국인쇄기술협회 심충강 상임고문, 중국신문출판사 김의천 처장 및 협회 직원들의 영접을 받은 후 상해 인쇄공단으로 직행, 중화상무연합인쇄를 시찰했다.

공장 시찰에 앞서 중국인쇄기술협회 무문상 명예이사장과 정월명 동사 부사장이 참석하여 양국 인쇄업계의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저녁에는 중국인쇄기술협회가 주최한 각국 대표 초청 만찬이 진행되었는데 홍우동 회장은 특별 인사말을 통해 "인쇄가 모든 문화의 뿌리이며 인쇄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세계인쇄인이 힘을 모아 인쇄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역설했다.

14일 국제인쇄전시회 개막식에서는 홍우동 회장, 이충원 회장, 조정석 이사장, 김진배 회장, 김국 부회장 등이 귀빈으로 초청을 받았으며 대표단은 한국인쇄관을 방문,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나눴는데 동양잉크, (주)타코-플러스 등 한국출품회사를 방문, 격려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국대표단과 중국인쇄기자재업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인쇄교류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각종 기자재의 합작 및 교류 판매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한·중합작회사인 상하이태용이터나 공장을 방문, 톱슨기계 제작공정 등을 살폈다. 대표단은 15일 무문상 명예이사장이 주최한 환송만찬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